

▶ 명·청대의 인구 증가

양상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기술의 발달, 경지 면적의 증가, 농서의 보급 등에 힘입어 농업 생산력이 꾸준히 향상 •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의 작물도 식량 증대에 큰 도움 • 면화, 뽕나무, 담배 등 수공업 원료나 상품 작물의 재배 증가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인구 증가 추이 (억 명)</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인구 (억 명)</th> </tr> </thead> <tbody> <tr> <td>1600</td> <td>1.4</td> </tr> <tr> <td>1650</td> <td>1.3</td> </tr> <tr> <td>1750</td> <td>2.15</td> </tr> <tr> <td>1850</td> <td>4.3</td> </tr> </tbody> </table>	연도	인구 (억 명)	1600	1.4	1650	1.3	1750	2.15	1850	4.3
	연도	인구 (억 명)											
1600	1.4												
1650	1.3												
1750	2.15												
1850	4.3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늪지대와 숲, 들 등을 개발하여 농경지로 개간 • 제방과 수리 시설 개선 ↳ 명 대 초기보다 경지가 세 배 정도 증가 •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사망률 감소 • 오랜 평화와 18세기의 온난한 기후 등의 영향 ↳ 폭발적인 인구 증가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환경이 파괴 • 물가가 크게 상승 • 수많은 실업자와 유민이 전국에 걸쳐 증가 → 비밀 결사와 농민의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 • 산간이나 변경 지대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심화 •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동남 해안 지역에서의 계투(械鬪) 만연 •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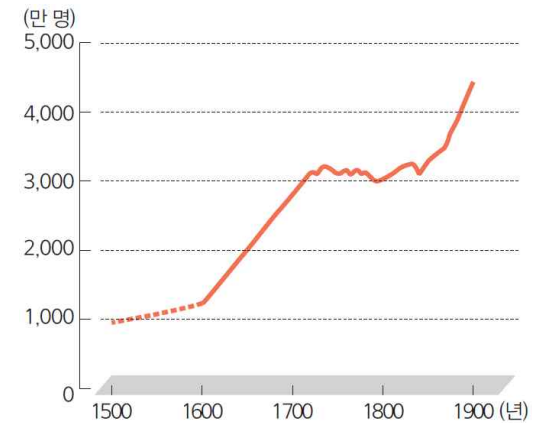
▶ 조선 후기의 인구 변화(『천재교과서』, p.112)

- 정부의 개혁 정책
 - : 전세를 낮추고 진전의 개간과 양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 : 숙종(㉑, 재위 1674 ~ 1720) 때에는 경지 면적이 전쟁 전의 상태로 거의 회복
- 농업 기술이 발전과 농업 생산력이 향상
 - : 모내기법과 시비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 장시의 발달로 상품의 유통 활발
 - : 면화, 담배, 채소 등 상품 작물 재배 증가
- 인구 변화
 - : 500만 명(건국 초기) → 1,000만 명(16세기 중반) → 인구 감소(17세기 전후) → 1,600만 명(19세기 중엽)
 - : 많은 사람이 삼북(황해도·평안도·함경도) 지방으로 유입 → 지역 개발 촉진
- **경신대기근(1670)**



▶ 에도 시대 일본의 인구 증가(『천재교과서』,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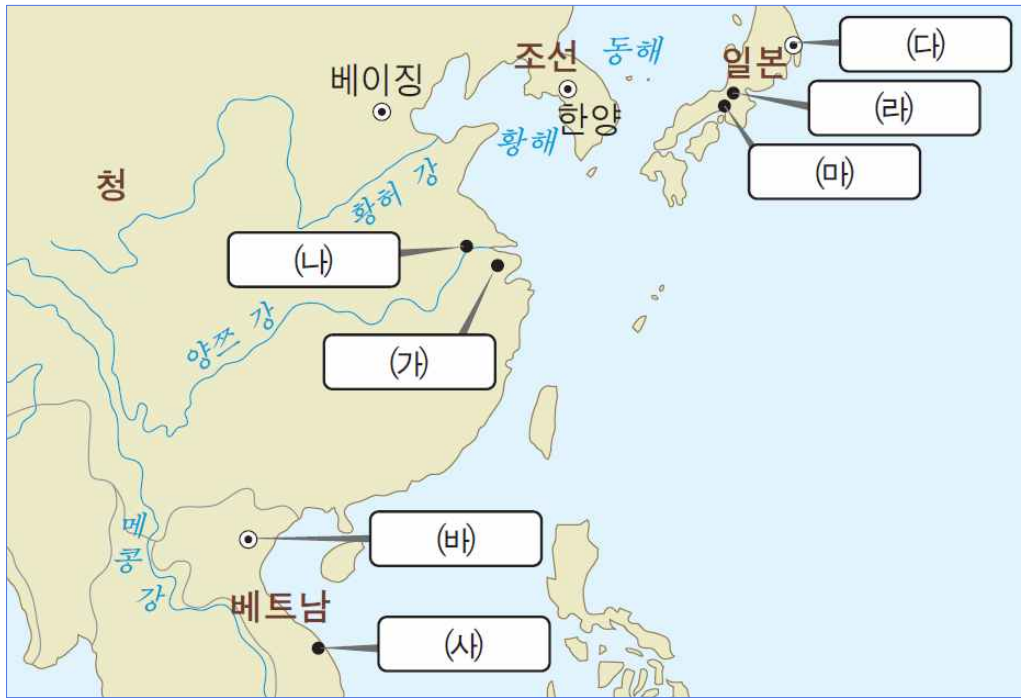
- 개간과 간척 등을 통해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하려는 노력
 - : 산비탈에까지 밭과 계단식 논이 조성
- 각지의 다이묘들도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농민의 토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
 - : 경지 면적이 두 배 이상 증가
- 농업 생산량의 증가
 - : 농기구 개량, 비료 사용 증가, 노동 집약적 농업 발전 →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의 재배
- 인구 변화
 - : 약 1,500만 명(17세기 초) → 2,500만 명(18세기 초)
 - : 다이묘의 수탈 증가, 교호 대기근(1732), **덴메이 대기근(1782 ~ 1788)** 등으로 인구 정체
- 오사카 쌀 폭동(1788)



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베이징 : 정치·군사의 중심지, 인구 100만 명, 최대 소비 도시, 강남에서 매년 400만 석 이상의 쌀이 대운하를 통해 운송 • 강남의 쑤저우 : 직물업 중심지, 최대 수공업 도시이자 상업 도시로 발전, 『성세자생도(盛世滋生圖, = 고소번화도)』 • 양저우 : 전매 상품인 소금 판매를 도맡아 큰 부를 축적한 상인들의 근거지 • 상업의 발달 : 면화와 면직물, 생사와 견직물, 목재, 콩 등이 전국적으로 유통, 차와 도자기의 생산과 수출 • 대운하와 창장 강, 연안 항로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 • 산시 상인, 휘저우 상인(‘휘저우 상인이 없으면 도시가 생기지 않는다.’) 등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 • 중소 상공업 도시인 시진(市眞) 증가 :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통해 포도송이와 같은 유통망을 형성하며 강남 전체를 도시화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기 후반 장시 출현 → 16세기 장시의 전국 확산 → 17세기 이후에는 포구(浦口) 시장과 도시 시장 등장 ↳ 18세기 전국에 1,000여 곳의 장시 성행, 상품 거래와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상업 발전 주도 • 대동법의 시행(1608~)으로 공인이 등장하여 상업 발달 촉진 • 한양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의주의 만상 등 사상의 활약 : 경강상인은 한강을 근거로 서해와 남해까지 진출하여 미곡, 소금, 어물 등을 거래 : 송상, 내상, 만상 등은 대외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 • 수도 한양의 도시화 촉진 : 외부 인구의 유입 증가, 수상 교통의 중심지인 성 밖의 마포 등 한강 변에 집중적으로 거주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농분리와 무사의 지배, 엄격한 신분 제도의 원칙 확립 : 각 번(藩)의 거점인 조카마치에 지배층인 사무라이가 거주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 막부가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산킨코타이 제도(1635~)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되고 여관업과 상업이 발달 • 조카마치 발전 : 18세기에는 전체의 약 10%에 달하는 주민이 도시 거주 : 막부 직할령인 에도, 오사카(천하의 부엌), 교토 등은 인구 수십만의 대도시로 발전 : 나고야,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에도 수만 명의 인구가 거주 • 조년의 성장 : 초기의 호상(豪商, 독점 어용상인)을 대신하여 출현한 신흥 상인들은 나카마라는 동업인 조합을 결성하여 영업권의 독점 모색 : 막부와 다이묘로부터 영업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나카마는 가부나카마로 공인(1745)

Check!

도시 발달



- (가) - 양저우
- (나) - 쑤저우
- (다) - 에도
- (라) - 교토
- (마) - 오사키
- (바) - 탕롱(하노이)
- (사) - 호이안



긴 다리 일곱 개를 지나서 비로소 오사카에 당도하니, 곧 모든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다. …… 길 양쪽의 긴 건물 중 층층의 집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온갖 물건을 파는 점포였다. …… 에도 길옆에 있는 회랑은 모두 상점이었다. …… 여러 사람의 눈이 뻑뻑하여 한 치의 빈틈도 없고, 옷자락에는 꽃이 넘치고 주렴 장막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오사카와 교토보다 세 배는 더하였다.

- 신유한(1681 ~ 1752), 『해유록(海遊錄)』

개념 Check

- ① 명·청 시대에는 () 대륙에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구황작물(救荒作物)이 전래되어 식량 사정이 호전되었다.
- ② 명·청 시대 강남 지역에서는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인 ()이 발달하였다.
- ③ () 왕조의 수도 탕롱이 대도시로 성장하고, 호이안이 국제도시로 번영하였다.

▶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부유해진 상인들이 있다. 이들은 남쪽으로는 일본, 북쪽으로는 중국의 연경과 통하여, 몇 년 동안 천하의 물자를 실어다 팔아서 간혹 수백만 금의 재물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런 자는 한양에 많이 있고, 그 다음은 개성, 평양, 안주, 의주 등에 있으니, 이들 중에 의주의 만상은 채문 후시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하였다.

- ① 한국 - 3포를 개항하여 일본과 교역하였다.
- ② 중국 - 교초(交鈔)가 발행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 ③ 중국 - 공행(公行)을 통해 유럽 상인과 교역하였다.
- ④ 일본 - 송(宋)으로부터 동전을 대량 수입하였다.
- ⑤ 일본 - 귀족의 사유지인 장원(莊園)이 출현하였다.

▶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쑤저우의 번창한 모습을 그린 『성세자생도(고소변화도)』의 일부로 운하를 오가며 쌀, 비단, 담배 등을 매매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시기에 쑤저우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는 시진(市眞)이 크게 늘어났고, 산시 산인과 휘저우 상인들은 회관(會館)을 건립하고 전국적으로 상권을 확대하였다.

- ① 중국 -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 ② 중국 -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하였다.
- ③ 한국 - 청해진이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이 되었다.
- ④ 일본 -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였다.
- ⑤ 일본 - 유력 농민층인 묘슈가 등장하여 장원을 관리하였다.

▶명·청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문화가 발전 → 도시 생활을 소재로 한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통속적인 취향이 반영 • 부유한 상인들이 문화의 주류로 등장 <p>: 청 대 고증학 후원, 출판문화와 지역별 음식 문화도 상인을 중심으로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술의 발전으로 소설, 희곡, 시험용 도서 등 다양한 서적이 보급되면서 문화 수준이 향상 • 농업이나 과학·의학·지리 등 실용 지식의 전파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사원이나 도교 사원 등 종교 시설에서 벌어지는 행사나 축제 • 곡예·잡기·마술을 공연하는 대규모 공연장에서 여가 활동 • 종합 예술인 연극은 농촌을 순회하며 공연할 정도로 대중적 인기 <p>: 베이징의 경극(京劇)이나 각지의 특색을 반영한 지방 연극이 크게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유기』, 『삼국지연의』, 『수호전』, 『홍루몽』(1791년 출판) 등 대중 소설이 서민 사이에서 유행 • 도시 생활이나 민간 풍속을 묘사한 그림, 정월에 집안에 붙여 두는 연화(年畵) 등이 인기

▶조선 후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당을 통한 교육이 널리 보급 •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분 구조의 변동, 실학 등의 영향으로 서민층의 자각에 바탕을 둔 문화가 발달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길동전』, 『춘향전』 등 한글로 쓰인 대중 소설이 유행 •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 판소리 발달 • 병산 탈춤이나 하회 탈춤 등은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여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 • 중인이나 부녀자, 기생, 상인 등이 즐겨 부른 사설시조의 발달 • 미술에서는 서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을 묘사한 풍속화, 민화 등이 성행 <p>: 풍속화가로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의 장면을 묘사한 김홍도, 도시민과 부녀자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신윤복 등이 유명</p>

▶에도 막부의 조닌 문화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이 자유로웠던 조닌이 도시의 중산층으로 등장하여 특유의 문화를 발전 ↳ 여가를 활용하여 문학과 연극, 그림 등의 예술 향유 → 점차 다른 사회 계층에까지 확산 • 데라코야(寺子屋)의 확산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에서는 남녀의 애정이 주요 소재로 이용, 주로 상인이 주인공으로 등장 • 전통적인 인형극인 분라쿠, 노래와 춤·재주를 결합한 대중 연극인 가부키가 유행 : 가부키는 전용 극장이 생기고 나중에는 지방의 마을에서도 공연 • 인기 있는 게이샤나 배우, 선정적인 풍속, 풍경 등을 묘사한 목판화인 우키요에 발달 • 꽃꽂이, 정원 장식, 다도 등 일본 고유의 예술도 발전

① 사설시조(『미래엔 교과서』, p.114)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 산 바라보니 하얀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쩍 뛰어 내달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다행히도 날썸 나이기에 망정이지 명이 들 뻔하였구나.

- 『청구영언』

② 조닌의 성장(『미래엔 교과서』, p.111)

오사카 항구에서 에도로 운송하는 술을 빚어 가문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구리 광산에 손을 대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요시노의 옷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금을 손에 쥔 사람도 있다. 고바야라는 쾌속선을 만들어 선박업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도 있다.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하여 부귀하게 된 사람도 있다. 철광산의 채굴을 청부 맡아 점차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최근 30년 이내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된 상인들이다.

- 이하라 사이카쿠, 『니혼에이타이구라(日本永代蔵)』

▶ 명·청 대의 학문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학인 주자학과 공론화된 양명학에 반발하여 농학, 지리학, 역법 등의 연구를 통해 경세치용을 추구하는 학문 경향 등장 : 『본초강목』(이시진, 의학, 1596), 『천공개물』(송응성, 산업 기술, 1637), 『농정전서』(서광계, 농학, 1639), 『기하학원본』 번역(서광계)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증학 : 명말 청초 고염무(1613 ~ 1673), 황종희(1610 ~ 1695) 등이 선구적 역할 :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인 사실 규명 중시 : 청(淸)의 사상 탄압(문자의 옥)과 한인 지식층 회유를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 과정에서 발달 ↳ 『고금도서집성』(옹정제, 1725), 『사고전서』(건륭제, 1773 ~ 1782) • 공양학 : 변법적 유학, 강유웨이(1858 ~ 1927) · 량치차오(1873 ~ 1929) : 진보 사관, 변법자강 운동(= 무술변법, 1898)의 이론적 토대

① 청 대의 고증학(『금성 교과서』, p.120)

역사적 사건과 흔적들은 칭송할 것도 담고 있고 비난할 것도 담고 있다. (그러하니) 역사를 읽는 사람들도 ㉠역지로 문법(이론적 틀)을 세우거나 멋대로 더하거나 덜어서 찬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건과 흔적의 사실 여부를 상고함에 있어서 연도를 날줄로 삼고 사건을 씨줄로 삼아 분류하여 배치하거나 모아서 차례를 정하고, 기록의 같고 다름 및 보고 들은 것의 어긋남과 합치됨을 하나하나 조목별로 분석하여 의심을 없게 한다. …… 일반적으로 학문의 길은 공허(한 사변)에서 구하는 것이 사실에서 추구하는 것만 못하니, 찬양과 비난을 논의하는 것은 모두 공허한 말일 뿐이다.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를 읽는 사람이 상고하고 따지는 목적은 모두 거기서 그저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왕명성(1720 ~ 1797), 『십칠사상각』

② 청의 고증학(『천재 교과서』, p.123)

나는 어려서부터 사서(四書)의 주석을 읽고 그 내용을 믿었으며 …… 자라면서 그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미 육경과 공자·맹자의 말을 깊이 읽고 이것들을 사서의 주석에 있는 말과 비교해, 주석이 말하는 심(心), 이(理), 성(性), 도(道)의 뜻이 육경 및 공자·맹자의 말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단옥재(1735 ~ 1815), 『경운루집』

▶ 조선 후기, 에도 막부의 학문

조선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학이 발달하고 전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예송 논쟁, 1659 · 1674) 발생 ↳ 서인 송시열(1607 ~ 1689) 주도, 주자학의 교조화 · 형식화 • 정제두(1649 ~ 1736)를 비롯한 소론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양명학을 연구하기 시작 : 실천을 강조, 주자학의 교조화 비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 • 연행사를 통해 서학이 전해져 천문학과 역법, 기계 제작 등에 영향 → 『열하일기』(1780) • 양반과 중인층 일부가 천주교 신봉 • 실학 등장 : 사회 ·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 모색 : 토지 개혁 등을 통해 농촌 사회를 안정(중농)시키거나, 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상공업의 진흥에 역점을 둘 것(중상)을 주장 : 정약용(1762 ~ 1836), 박지원(1737 ~ 1805)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자학의 관학 채택 : 무사 계급의 주종 관계 합리화 → 중국, 조선과 달리 사회를 지배하는 윤리로 정착하지 못함. • 양명학은 점차 불합리한 사회 현실과 제도를 개혁하자는 실천적 성격 표방 → 막부 타도를 주장하는 무사들의 공감 : 구마자와 반잔(1619 ~ 1691), 막부의 세습 비판 • 고학과(17세기) : 이토 진사이(1627 ~ 1705), 오규 소라이(1666 ~ 1728) 등 :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공자와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 • 국학과(18세기 후반) :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 ~ 1801) : 일본의 고전 연구 주장, 고전에 깃든 일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 : 『대일본사』 편찬(1657~),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 → 존왕양이 운동에 영향 • 난학(랑가쿠)의 발달 : 네덜란드 상인에게 개방한 나가사키를 통해 서양의 의학 · 천문학 · 언어학 등이 들어와 새로운 지식이 축적 : 스기타 젠파쿠(1733 ~ 1817), 『해체신서』 저술(1773)

① 군주 제도 비판(『미래엔 교과서』, p.119)

옛날에는 천하 사람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었다. 군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다. 무릇 천하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 만약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황종희(1610 ~ 1695), 『명이대방록』

② 에도 막부의 고학(『비상 교과서』, p.118)

유학의 흐름이 …… 이상한 행동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 성인(聖人)이란 천자(天子)이며, 천자는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자신의 직분으로 한다. 따라서 성인의 도란 바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도라는 본래의 뜻을 어느 틈엔가 잊어버렸다.

- 오규 소라이(1666 ~ 1728), 『태평책』

③ 에도 막부의 국학(『금성 교과서』, p.120)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일본의 태양신)는 우주 사이에서 견줄 바 없는 존재로서, 크리스트교의 하나님이나 유교의 천명(天命)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아마테라스가 태어난 일본은 만국의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 그 후손인 천황의 대군주로서의 지위는 불변하다.

-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 ~ 1801), 『고사기전』

④ 조선의 실학(『천재 교과서』, p.123)

나라에서는 과거를 통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만을 뽑으니 …… 가지만 잡고 근원을 잃어버려 기억은 많지만 지혜는 어두워져, 마침내 쓸데없는 학문이 되고 만다. …… 옛적에 한 가지 경(經) 이상에 밝은 사람을 취한 것은, 그 한 경에만 전력하여 이해가 깊고 실용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 이익(1681 ~ 1763), 『성호사설』

⑤ 조선의 실학(『비상 교과서』, p.117)

재물은 우물과도 같아 퍼서 쓸수록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비단을 입지 않아서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으면 길쌈질이 쇠퇴하고, 그릇이 비뿔어지든 어떻든 개의치 않으면 나라에 공장(工場)과 도야(질그릇 굽는 곳)와 대장간(大鑪間)이 없어지고, 기예도 없어지는 것이다.

- 박제가(1750 ~ 1805), 『북학의』

• 명·청 대

인구 증가

- 토지 개간→청, 쓰촨 지방과 양쯔강 상류(쌀)
- 생산력 발전, 사망률 감소
- 신작물의 유입(옥수수, 감자, 고구마)
- 명말청초 약 1억 4천만 명에서 18C말 3억
- 부작용 : 1인당 경지면적 축소
- 실업자, 유민 증가로 농민반란
- 인구 이동과 계투(械鬪), 환경파괴, 물가상승

도시 발달

- 전국적 유통, 양쯔강과 대운하, 대상인(산시 - 휘저우 상인)
- 베이징(영락제, 1421), *영락제 → 대운하 정비
- 강남(상업 발달), 시진(시장 도시) 증가

서민 문화

- 출판(인쇄술 발달) : 실용 지식 서적(과학, 의학 등)
- : 서유기·삼국지연의·수호지, 홍루몽
- 공연 문화 : 곡예, 잡기, 마술 공연
- : 희곡 농촌까지 순회 공연 → 청, 경극
- 행사 : 불교 사원·도교 사원 등 행사, 명절 축제

• 일본 에도 막부

인구 증가

- 경지면적 확대 · 토지 조사(검지), 생산량 증대
- 17C초 ~ 18C초 2,500만 명
- 18C 중·후반 이후 정체 · 감소
- 다이묘(영주) 수탈 증가
- 자연 재해 : 덴메이 대기근(1782)

도시 발달

- 조카마치 : 번 거점, 무사 + 조닌(상공업자)
- 산킨고타이 : 다이묘 → 에도 쇼군 알현, 1635
- ↳ 도로망, 숙박업 발달
- 상업 도시 : 나고야·나가사키·사카이
- 상인 : 다이묘 · 무사 상대 환전 및 대부 등 금융업, 동업 조합

서민 문화(조닌 문화)

- 통속적 문학(주인공 상인)
- 분라쿠(인형극), 가부키(대중 연극)
- 우키요에(판화), 풍속(게이사), 테라코야(서당)

• 조선

인구 증가

- 15 ~ 16C말 증가, 17C 중반 이후 ~ 19C초 증가
- (예외 : 임진·병자 전쟁, 17C 전후 200만 명 감소)
- 1670년대 초 대기근으로 100만 명 사망
- 17C 후반 이후 북부 개발 : 삼북(황해·평안·함경도)

도시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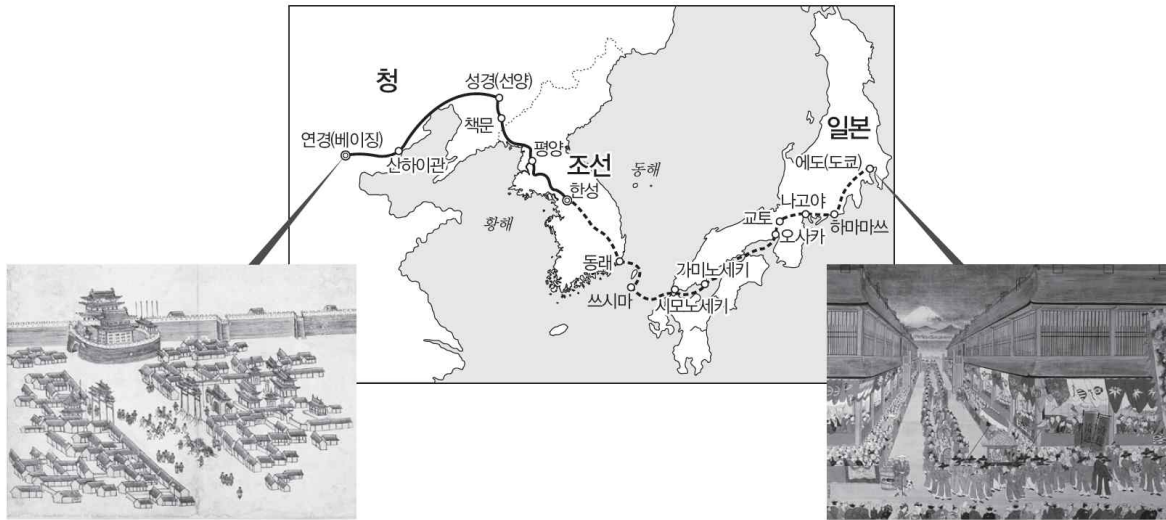
- 16C 이후 장시 발달 → 18C 전국적(1,000여 곳 : 보부상)
- 포구와 도시 시장 번성
- 한양 : 수도, 대동법 확산, 화폐 유통 등으로 발전
- 서강, 마포 → 18C 이후 30만 명 인구 증가
- 강경·원산 등 포구 도시 성장, 개성(송상)과 의주(만상)
- 화성(정조 대 계획 도시로 성장, 1796)

조선 후기 서민문화(부농, 상공업자)

- 서당 교육 확대
- 한글 소설(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 판소리(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
- 풍속화(김홍도, 신윤복 등), 민화
- 상업 도시 중심으로 탈춤 공연(ex)봉산탈춤]



▶ 다음 외교 사절이 활동하던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경에 도착한 외교 사절

▲ 에도에 들어가는 외교 사절

- ① 한국 - 고구마 등 신작물의 재배 지역이 확대되었다.
- ② 중국 - 대운하를 이용하여 강남 지역과 베이징을 잇는 유통이 발달하였다.
- ③ 일본 - 상공업자가 모여들면서 막부 직할령이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 ④ 베트남 - 전통적 극예술인 수상 인형극이 유행하였다.
- ⑤ 오키나와 - 슈리를 수도로 한 류큐 왕국이 세워졌다.

▶ 다음과 같은 공연이 유행하던 시기 동아시아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인의 공연은 재미있으나 별나서 나에게
게는 오히려 터무니없어 보였다. 공연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통역의 설명이 필
요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애 이야기와 영웅
의 공적 등을 소재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름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았으나 극장이
매우 좁고 답답하였다.



이 글은 데지마에 머물렀던 네덜
란드 상관의 의사 튜베리가 자신
이 본 노래, 춤, 연기가 어우러진
공연을 평가한 것입니다.

- ① 한국 - 장이 서는 날에 탈춤 공연이 성행하였다.
- ② 한국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편찬되었다.
- ③ 중국 - 종합 예술인 경극이 유행하였다.
- ④ 중국 - 정월에 집안에 붙여 두는 연화(年畵)가 유행하였다.
- ⑤ 일본 - 조닌이 우키요에 등의 그림을 즐겼다.

▶ 밑줄 친 '이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소설 『홍루몽(紅樓夢)』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소설은 상류층의 애정 관계를 줄거리로 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깊이 있는 사회 비평을 담고 있다. 『홍루몽』이 지어진 이 시기에는 출판문화의 발달로 많은 대중적인 소설이 출간되었다.

- ① 효를 강조한 『부모은중경』이 등장하였다.
- ② 단군을 서술한 『제왕운기』가 집필되었다.
- ③ 성리학설을 집대성한 『성리대전』이 완성되었다.
- ④ 문헌의 엄격한 실증을 중시한 고증학이 발달하였다.
- ⑤ 신토와 불교를 융합한 신불습합 사상이 처음 출현하였다.